

2014년 시민역사강좌 <제 12기 가야학아카데미>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②

2014년 9월 24일(수), 오후 2~4시

김해의 불교

조 원 영

합천박물관 학예연구사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부터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시민역사강좌 <제 12기 가야학아카데미>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②

김해의 불교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621-900)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핸드디자인 / 070-7380-0641

1. 불교 수용의 의미

한국 고대사회에서 불교가 수용되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초기국가의 왕들은 하늘의 자손이라는 설화를 형성하였고 무속신앙은 왕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 해(解)씨에서 고(高)씨로, 백제는 해(解)씨에서 부여(扶餘)씨로, 신라는 박(朴)씨·석(昔)씨·김(金)씨로 왕권의 계통이 변하게 되는데, 새로이 권력을 장악한 지배집단은 그들이 가진 정치권력에 비해 종교적 권위가 약하여 이전의 지배집단이 귀족세력을 형성하여 국왕권을 제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여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부족적인 성격을 지닌 무속신앙을 대체하여 왕권을 지지해 줄 새로운 사상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불교가 공인될 무렵에 각 국가마다 율령(律令)이 반포되었다는 점은 불교라는 사상적 뒷받침을 받아 정치적으로도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왕권의 의지로 볼 수 있다.

삼국의 불교 수용은 우리의 역사자료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하여 대체적인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야의 경우는 삼국처럼 불교가 공식적으로 수용되었다는 기록이 없다.

물론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김해 가락국의 불교 관련 기록이 보이지만 수로왕 당시의 상황을 보면 가야는 삼국의 일반적인 불교 수용의 경우처럼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나 강력한 왕권이 형성된 시기가 아니었다. 즉 기록대로라면 기원 1세기 중반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는 가야가 이제 막 국가를 형성하던 단계였으므로 불교를 수용할 만큼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김해지역에 아주 이른 시기에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사료가 남아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김해지역에 전해지는 불교 전래 기록과 남아 있는 불교 관련 유적·유물들을 분석해보면 김해지역의 불교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2. 김해 불교의 시작, 가야불교

1) 가야라는 국명과 불교와의 관련

김해지역에 불교가 시작된 것은 가야시대부터였다. 따라서 김해 불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야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야 불교에 대해서는 전래시기, 전래된 불교의 성격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가야시대 김해지역은 가락국이 있었던 곳으로 다른 가야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사료가 남아있다. 즉 『삼국유사』에는 「가락국기」라고 하여 김해 가락국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가락국의 시작뿐만 아니라 불교의 전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해의 초기 불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가락국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가야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접근해보도록 한다.

먼저 가야 불교의 전래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가야지역에 불교가 가야의 국가 성립 시기에 이미 전래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처럼 가야 초기부터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불교 전래의 시기와 초기 불교의 성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가야(伽倻·伽耶·加耶)라는 국명에서부터 불교와의 연관을 찾기도 하고, 문헌 및 고학적 증거를 통하여 수로왕과 허왕후를 불교와 연관 지어 설명하기도 한다.

‘가야’라는 국명 자체가 불교와 더불어 수입된 단어라는 주장도 있고, 불교

경전에 나오는 지명과의 연관성으로 보아 가야라는 국명이 불교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지니고 있지만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우선 가야라는 국명과 불교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경우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기록되어 있는 허왕후의 출신과 가야지역으로의 도래 과정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하여 비판 없이 그대로 믿은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허왕후 이야기는 불교와 관련하여 윤색한 부분이 있는 듯하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대다수의 역사자료와 마찬가지로 「가락국기」가 전해주는 역사적 사실은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많은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여 허왕후 당시의 사실과는 상당한 차이를 지닌 채 『삼국유사』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락국기」는 가야의 국가 이름과 불교와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자료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가야의 국명과 불교경전을 연관 짓는 견해 또한 문제가 있다. 증거가 되는 경전들이 모두 한문경전이라는 점이 그러하다. 만약 한문경전에서 그 국명을 따왔다면 가야 불교가 인도에서 바로 건너왔다는 것과 모순된다. 또 관련된 불교경전이 한역된 시기가 「가락국기」에 나오는 불교 전래 연대보다 훨씬 후대라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화경』의 경우 가야의 개국시기보다 한참 뒤인 406년에 한역되었다.

2) 수로왕과 가야불교

한편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이는 16나한(羅漢)과 7성(聖)의 존재, 『삼국유사』 「어산불영(魚山佛影)」 조의 만어산 설화, 그리고 기타 자료에서 보이는 수로왕대의 사찰 창건 등을 근거로 가락국의 건국시조 수로왕과 불교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도 역시 역사자료를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가락국기」는 후대의 기록이므로 이 기록을 해석할 때는 수로왕 신화의 형성 시점과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즉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수로왕 신화의 초기 단계, 이것이 가야왕실가계의 기록으로 정착되는 가락국의 어느 왕 시기, 신라 말 고려 초 옛 가야세력의 부흥기에 김해의 호족이었던 김인광, 소유희 등에 의한 수로왕 신화의 확대발전 단계, 고려 11대 문종 대강(大康) 연간에 금관지주사(金官知州事) 문인(文人)의 『가락국기』 저술 단계, 이 내용을 다시 고려 25대 충렬왕대의 승려 일연이 『삼국유사』에 편집해 넣은 시기까지 무려 천여 년 간의 기간이 흘렀으며 그 간의 기록자들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성격에 따라 각각 관점의 차이를 갖고 이 설화를 기록하였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수로왕과 불교가 관련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 「가락국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교와 풍수설의 영향을 입은 후대 사람들이 수로왕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마치 수로왕이 말한 것인 양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만어산 설화는 불경에 수록된 설화를 받아 들여 등장인물과 장소를 국내의 것으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수로왕 당시의 역사적 사실일 수는 없다.

3) 김해지역 불교유적 · 유물과 가야불교

다음으로 수로왕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는 사찰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수로왕대에 창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찰은 서림사(西林寺)와 만어사(萬魚寺), 흥부암(興府菴), 백운암(白雲菴) 등다. 서림사(지금의 은하사)는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에 의하면 수로왕 1년(42)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만어사는 『한국사찰전서(韓國寺刹全書)』에 따르면 수로왕 5년(46)에 초창

되었고, 흥부암은 『조선사찰사료』에 수로왕 13년(54), 백운암 역시 정확한 연대 없이 수로왕대에 창건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서림사는 대웅전 취운루중수기 현판(1812)에 의하면 허왕후와 장유화상이 인도로부터 건너온 뒤에 수로왕의 명으로 명월사 등과 함께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수로왕 1년(42)은 아닐지라도 수로왕대에 창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운루중수기 현판보다 앞서 중종 25년(1530)에 증보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김해 불우(佛宇) 및 고적(古跡)조에는 감로사, 금강사, 명월사, 왕후사 등의 절 이름은 보이지만 서림사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곧 중종대까지도 서림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만어사는 《삼국유사》 어산불영조에서 고려 명종 10년(1180)에 처음 창건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흥부암과 백운암의 창건을 수로왕대로 믿을 만한 근거나 고증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이들 사찰의 창사설화에 의거하여 수로왕 때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현재 김해지역에 남아 있는 불교관계 유물로는 장유암의 장유화상 사리탑·안곡리 삼층석탑 등의 불탑, 김해 구산동 마애불·불암동 마애불·초선대 마애불·진영 봉화산 마애불·장유 유타리 마애불 등의 불상이 있는데 이들은 가야당시에 제작된 것이 아니라 모두 고려시대 이후의 유물이다.

4) 장유화상과 가야불교

한편 수로왕대에 가야에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주장 가운데는 허황옥과 그녀의 동생(혹은 오빠) 장유화상이 가야로 오면서 불교를 들여왔다는 견해가 있다. 만약 장유화상이 가야에 불교를 들여올 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면 『삼국유사』 「가락국기」나 「금관성파사석탑(金官城婆娑石塔)」조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것인데 전혀 언급이 없다. 특히 「가락국기」에서는 허왕후의 추

종 신하들의 이름과 그 아내의 이름, 그리고 따라온 노비 수까지도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동생이 함께 왔다면 당연히 수행한 자들보다는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곧 『삼국유사』가 편찬된 고려 충렬왕대까지도 장유화상이라는 존재는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로 장유화상이라는 이름과 그의 활약상은 1800~1900년대 조선 후기의 자료들에서 등장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허황후와 가야불교

허황옥과 불교를 연관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삼국유사』 「가락국기」와 「금관성파사석탑」 조의 기록을 그대로 인정하고 아유타국의 존재를 찾고 있다. 아유타국을 증명하기 위해 고고학적으로는 파사석탑이나 쌍어문의 분포, 그리고 아유타국에서 가야로 오는 경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삼국유사』에 전하는 파사석탑에 대한 설화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한다면 수로왕 당시에 파사석탑은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구전되어 온 설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불교와의 인연을 강조하려는 후대에 첨가된 요소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설화는 같은 『삼국유사』에 전하는 「요동성육왕탑(遼東城育王塔)」 조나 「황룡사장육(皇龍寺丈六)」 조의 경우와 비슷한 전형적인 탑상연기설화(塔像緣起說話)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물론 허황옥이 불교와 관련이 있는 석탑을 직접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는 두 설화와 차이가 있으나 인도에서 불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 바다를 건너왔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야기의 구조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설화는 불교와의 관련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시점은 5세기 중반의 왕후사 창건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질

지왕대에 허황후의 명복을 비는 절을 세우면서 본래 그녀가 불교와 인연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꾸민 연기설화로 보는 것이다.

「가락국기」에 전하는 허황옥의 도래 과정에 대한 내용을 역사적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허황옥은 인도불교와 관련 있는 실존했던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허황옥의 출신국인 아유타국의 존재 역시 사실 그대로의 국명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유타국이 기원전 3세기 경에 번영했던 인도 아요디아라는 설이다. 그 근거로는 태양문양, 신어문(쌍어문), 그리고 인도문자와 한국문자의 관련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신어문은 아직까지도 김해지역 유적의 발굴에서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신어문의 공간적 분포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을 정도로 세계의 넓은 지역에 걸쳐 있고, 시간적으로도 기원전 7세기부터 20세기까지에 걸쳐 있다. 그러므로 신어문을 기원후 1세기 대에 한정하여 그것도 인도와 가야만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6) 가야 불교 전래 시기

가야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가 가야 초기인 수로왕대나 허황옥의 도래 이후가 아니라면 과연 불교는 언제 전해졌을까? 앞에서 제시한 『삼국유사』 「금관성파사석탑」 조에 그 시기를 짐작할 만한 내용이 있다. 즉 해동에는 절을 세우고 불법을 받드는 일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불교가 전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8대 질지왕(鎡知王) 2년(452)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왕후사(王后寺)라는 절을 세웠다고 한다.

삼국에 불교가 수용되는 시기에는 국가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도승의 거처를 마련해주기 위해, 또 그들이 가지고 온 불상과 경문(經文)을 봉안하기 위해 사찰이 창건되었다. 이것이 우리 고대사에서 불교 수용 초기의 일반적인 양상

이었다. 가락국의 경우 수로왕대와 허황옥 도래 이후 바로 사찰이 창건되지 않았고 452년에야 비로소 왕후사가 세워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질지왕대에 이르러 김해 가락국에 본격적으로 불교가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는 신라에 불교가 수용되는 시기와의 큰 차이가 없다. 불교가 도입되는 계기는 4세기 말 고구려에 대응하기 위해 백제와 가까워지던 시기에 백제로부터 도입되었을 가능성, 고구려 광개토왕군의 남정(南征) 무렵 고구려로부터 전래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가야 이후의 김해 불교

신라 말의 역사 자료 가운데 김해 불교의 성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신라 말에는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에서는 중앙 정권에서 떨어져 나온 귀족이나 지방의 세력가들이 불교 사원, 해외 무역, 군진 세력, 촌주의 지위 같은 것을 배경으로 호족으로 성장해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김해지역에도 호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와 「봉림사진경대사보월능공탑비」에 당시 김해지역을 관할하던 호족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이 있다. 또한 그 호족들과 그들이 후원해주었던 나말여초의 불교 승려와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가락국기」에는 충지 장군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신라 효공왕 11년(907) 당시에 김해지방의 정권, 군권, 재정권을 망라한 최고지배자인 소충자와 동일인으로 보인다. 소충자 이전에 김해지방에는 지김해부·진례성군사·명의장군이라는 직명을 가진 김인광이 있었다. 김인광은 소충자에 앞서 성

장한 김해지방 최초의 호족으로서 수로왕의 제사를 받들던 가야계 후손이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김인광은 이후 자신의 밑에서 활동하다가 마침내 그를 제치고 이곳의 최고 권력을 거머쥔 소충자·소율희 형제의 힘에 밀려 결국 역사 기록에서 사라지고 만다.

김인광, 소충자를 이어서 김해지방의 실력자로 등장한 이는 소율희였다. 소율희는 소충자의 아우로서 신라 효공왕 11년(907)에 영군(領軍)이란 지위에 있었으나, 이보다 4년이 지난 911년에는 김해부지군부사로서 실질적 통치권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그는 봉림사 진경대사 보월능공탑비에 지진례성제군사 김율희로 나타난다. 같은 시기에 하나의 지역을 장악한 인물이 둘일 수 없다는 상식적 판단에 입각해 보면 결국 소율희와 김율희는 동일인으로 보인다.

이들 호족이 김해지역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 선종 9산문 가운데 봉림산문의 진경심희, 사굴산문의 낭공행적, 수미산문의 진철이엄 선사를 후원하고 있었다.

진경심희는 김유신의 후손으로 김해 지역에서 태어나 9세에 원감현욱에게 출가하여 승려가 된 인물이다. 그는 10년 만인 868년(경문왕 8) 스승의 심인(心印)을 전수받았다. 심희는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전국을 두루 돌면서 수행과 교화 활동을 펼쳤는데, 찬유(璨幽)와 같은 제자승(弟子僧)을 대동한 가운데 돌아본 곳으로는 광주·설악·명주 등 당시 반신라(反新羅)의 정서가 팽배한 곳이 많았다.

심희가 창원 지역에 머물게 된 것은 20여 년 동안의 순례 행을 마친 이후의 일인데, 출신지인 김해와 가깝고 무엇보다 '복림(福林)'이라 불릴 만큼 길지(吉地)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그는 많은 제자를 길러 산문을 발전시켰다. 봉림사는 창원 지역과 김해 지역의 후원자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다. 그들이 바로 지김해부진례성제군사(知金海府進禮城諸

軍事) 명의장군(明義將軍) 김인광(金仁匡)과 진례성제군사(進禮城諸軍事) 김 율희(金律熙)였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나말여초 시기 김해지역은 지방호족이 적극적으로 후원한 선종 사상이 지역의 사상계를 주도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진경대사가 입적할 때 그의 제자가 500여 명이나 되었다는 것으로 볼 때 참선을 위주로 하는 선사상이 김해지역 일반 민들에게 널리 퍼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불교 신앙적인 측면은 남아있는 기록 자료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김해 지역에 남아있는 불상을 살펴보면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약사불 등 다양하여 현세구원의 성격을 띤 석가모니불신앙, 약사신앙과 함께 정토신앙인 아미타 신앙도 유행했음을 엿볼 수 있다.

「제12기 가야학아카데미 -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 교육과정

- 일시 : 2014.9.24.~11.26. 매주 수, 오후 2시~4시(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주제	강사	소속	비고
1	9.24.	김해의 한글학자 눈피 허용	하치근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2	10.1.	김해의 불교	조원영	합천박물관 학예연구사	
3	10.8.	청동기시대의 김해	배진성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4	10.15.	낙동강과 김해의 역사지리	김덕현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5	10.22.	<답사> 김해문화유산답사	송원영	대성동박물관 학예연구사	
6	10.29.	김해의 유교문화	김훈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7	11.5.	김해왜성과 그 의미	나동욱	부산근대역사관장	
8	11.12.	이학규의 시문을 통해 본 김해의 옛 모습	김성진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9	11.19.	김해 제염업의 역사	유승훈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	
10	11.26.	김해의 지명에 대하여	민궁기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강의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